

도시 농부들의 멘토 '도시농업활동가'

도시농업활동가 박정자

2000년대 미국 뉴욕의 한 빈민가. 화학 발전소와 쓰레기 투기장에서 나오는 매캐한 공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아이들 네 명 중 한 명이 천식을 앓았습니다. 평생을 이 도시에서 자라온 '마조라 카터'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는 생각에, 도시의 환경을 바꿔보자고 결심합니다. 마조라 카터는 주민들에게 옥상 위에 텃밭을 만들고 도시 곳곳에 식물을 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시 공기가 맑고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옥상텃밭에서 자라난 싱싱한 유기농 채소 덕분에 지역경제까지 살아난 것입니다. 천식환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근 지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을 동경하는 도시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각종 편의시설 등 도시의 장점도 많지만 오염된 공기와 요란한 소음 등 단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도시를 떠나기는 어려운 사람들. 도시농업활동가는 이들이 도시에서도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도시에서 농업을 꿈꾸는 도시 농부들의 멘토, 도시농업활동가. 도시농업활동가는 어떤 일을 하고, 도시농업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봅시다.

도시농업활동가가 하는 일은?

도시농업활동가는 작물만 기른다? NO!

도시농업을 널리 알린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계나 재료 개발도
도시농업장터 등 다양한 사업기획까지

도시농업활동가가 하는 일을 살펴보기 전에 도시농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도시농업이란 농촌의 텃밭이나 농장을 도시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물을 키우거나, 빌딩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말하지요. 직접 기른 작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요즘은 신선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 생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점도 많은데요. 다음을 보세요.

※ 도시농업의 장점

-식물의 호흡이 도시의 공기 정화
-도시로 곤충과 야생동물을 불러들여 생태학적인 도움
-옥상 표면 온도 낮춰주는 옥상 텃밭으로 여름철 냉방비 절약
-식물을 키우며 도시인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 ↑

도시농업활동가는 이러한 도시농업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여 도시인에게 보급하거나, 도시민들이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농사요령이나 관

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시농업이 낯선 도시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도시농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계나 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도시농업활동가의 일입니다. 도시농업활동가가 새로운 기계나 재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농업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분을 발효시켜 냄새가 나지 않는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도시농업활동가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작물, 농기구, 그리고 씨앗 등을 사고파는 도시농업장터를 기획하거나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도시농업활동가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도시농업활동가라고 하여 작물을 기르는 활동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잘 알겠지요?

▼ 도시농업활동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주변 환경 살피는 꼼꼼함과 작물에 대한 지식 있어야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은 장소마다 달라

▶ 주변 환경을 먼저 살피는 꼼꼼함 중요!

도시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 작물에 대한 지식은 필수!

도시농업활동가에게는 작물을 키울 환경을 사전에 자세히 살피는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박정자 도시농업활동가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싶다면

“옥상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방수는 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작물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작물에 대한 지식도 필수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물을 기르고 싶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박정자 도시농업활동가는 “우리창과 방충망을 모두 활짝 열어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해야”하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도시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작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작물이 잘 자라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요.

▼ 도시농업활동가가 되려면?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 이수해야

도시농업활동가가 되려면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각 지역의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각 센터나 기관마다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토양, 미생물, 씨앗 등에 대해 배우고 거름을 만들거나 작물을 기르는 등의 실습과정을 거칩니다.

도시농업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농업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면 전문적인 도시농업활동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도시농업활동가,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작물에 대한 애정 가져야

수많은 사람과 만나며 다양한 활동

▶ 열린 마음 가지고 소통해야!

단 열매 얻기 까지는 수 일이 걸린다

▶ 작물에 대한 애정과 인내심 필수!

도시농업활동가는 작물만 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농업을 시작하는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농업기계를 개발하거나, 지자체와 논의하여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일을 하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따라서 도시농업활동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합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부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단 열매를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박정자 도시농업활동가)

박정자 도시농업활동가는 작물이 잘 자라날 때까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도시농업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농업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도 열심히 가꿔나가며 꾸준히 노력하기를 바랍니다.